

GGM 위탁생산 ‘캐스퍼 일렉트릭’ 日 현지 언론 호평

일본경제신문 시승기 게재
주행 성능·안전 사양 극찬
라쿠텐 협업 등 판매 강화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터)이 일본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 1일 현대차 일본법인과 일본자동차수입조합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유력 신문인 일본경제신문은 소속 기자가 직접 인스터를 운전하면서 제법한 시승기를 게재했다. '현대차 수입 EV, 최저가 28만엔 일본 사양의 승차감을 기자가 체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인스터가 일본의 좁은 도로에 최적 차량으로 보이고 주행 성능이 우수함은 물론 ADAS 등 안전 사양 장착에 놀랐다고 호평했다. 특히 일본의 메이커 차량은 브랜드력으로 일본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향후 가격과 성능에



서 인스터를 이기는 차량의 투입 없이는 언젠가 일본 메이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일본법인은 지난 4월 소형 전기차

인스터를 이기는 차량의 투입 없이는 언젠가 일본 메이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는 인스터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일본 내 판매량을 10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780대이며, 인스터 위탁 생산을 맡은 광주 글로벌모터스(GGM)의 생산 계획과 연동된다. 현대차는 일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라쿠텐과 협업하며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요코하마 CXC에서 열린 인스터 소개 방송은 라쿠텐의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 '라쿠텐카'를 통해 송출됐고, 누적 시청자 수는 6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라쿠텐 '드래곤' 플랫폼 최초의 완성차 콘텐츠로, 현대차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또한 현대차는 오사카에 전기차 전용 쇼룸을 오픈했으며, 기존 주유소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일본 내 첫 시도다. 후쿠오카 지역에서도 예비 거점을 운영 중이다. FM 요코하마 방송과 협업해 시민 인터뷰와 시승기 콘텐츠를 제작하며 현지화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내 브랜드 점유를 넓히고,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호기자

트럼프 관세에 5월 대미 車수출 32% 줄었다

4월 수출감소율비 10%p 이상 웃돌아
현지 생산비중 확대·가격 인상 등 검토

우리나라 2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지난 달 큰 폭의 수출 감소율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기아 및 한국GM의 미국 수출 비중이 최대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장기화 시 피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62억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18억4천만달러로 무려 32.0% 급감했다. 이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가 발효됐던 지난 4월 기록했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감소율(19.6%)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트럼프 관세 외 별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면서 이러한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한국GM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4%, 28%,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2-3개월에 불과한 현지 재고분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1·2위 업체인 현대차·기아는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현대차 엘라베라공장(33만대)과 기아 조지아공장(35만대)을 풀가동한다. 국내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 감소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광주전남본부, 대선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에 걸쳐 광주·전남지역 27개 개표소, 1천557개 투표소, 29개 선관위에 공급되는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개표가 진행되는 27개 개표소에는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시·예비 1·2전원,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포함한 4종 전원을 구성해 무정전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3일 개표 종료 시까지 본부와 사업소에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무인 변전소 비상근무, 개표소 전문인력 배치, 공급선로 특별순회와 긴급복구 인력 비상대기 등을 위해 총 825명이 비상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선거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시설에 대한 무결점 전력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유통, 핫 매실 판매 시작
농협유통이 새콤달콤한 '핫 매실'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힌 1일 모델들이 올해 처음 출하된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령대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10년 전보다 ↓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과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분석 결과 10년 전과 비교해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으나 이에 비례해 소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 가계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인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73.6%에서 2024년 70.3%로 3.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69.3%에서 62.4%로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30대 이하(73.7%→71.6%), 40대(76.5%→76.2%), 50대(70.3%→68.3%), 70대(79.3%→76.3%) 등 전 연령대에 걸쳐 10년 전보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월평균 가처분소득(348만2천원→346만8천원)과 소비 금액(248만3천원→256만7천원)도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 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 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